

#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수 불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eaching Anxiety of University Librarians

오 선 혜 (Sunhye Oh)\*

###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연구방법   |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가 경험하는 교수 불안(Teaching anxiety)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A그룹 대학도서관 사서 중 교육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138부의 유효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4.8%에 해당하는 사서가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불안은 근무 경력, 교육업무 경력, 교육 빈도, 교육업무 비중, 교육 역할 인식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 역할 진입 전 느끼는 감정과 준비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문헌정보학 학부 과정부터 이용자 교육에 대한 교과 과정 개설과 상급 기관 또는 협의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사서 전문 교육훈련 기관의 커리큘럼 다양화 등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eaching anxiety experienced by instruction librarians of university libraries and to propose support measures to alleviate i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instruction librarians among librarians of group 'A' university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of analyzing a total of 138 valid responses, 84.8% of the librarians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d teaching anxiety. There was no difference in teaching anxiety in terms of library work experience, instruction work experience, instruction frequency, instruction work weight, and librarian role recognition,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s and readiness before entering the teaching role. As a way to alleviate the teaching anxiety of instruction librarians, it was suggested that the curriculum for user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undergraduate cours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at the level of higher institutions or councils, and to diversify the curriculum of specialized librari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키워드: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 도서관 교육, 교육사서, 교수 불안

University Library, User Instruction, Library Instruction, Instruction Librarian, Teaching Anxiety

\*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shosho28@cnu.ac.kr / ISNI 0000 0004 8343 5092)

논문접수일자: 2023년 4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5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5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321-347,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2.321>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대학도서관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 이용행태 및 정보 요구의 변화, 새로운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등장 등 외부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사서의 역할도 함께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장의 사서들은 대학도서관이 맞이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노영희, 2016).

대학도서관 사서의 다양한 역할 중 '교육(teaching)'에 대한 역할은 아주 오래전부터 언급되어왔으며 직업적 정체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보 문해의 출현과 확장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교육 역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연구지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존에는 학부생들에 대한 도서관 이용 교육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초보 연구자인 대학원생, 나아가 교수에 대한 교육 역할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다소 독특한 교육 현장에 놓여 있다. 먼저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가장 많이 요청받고 수행하는 원샷 세션은 1-2시간 만에 끝나는 일회성 교육으로, 그 교육 내용과 사용 틀에 있어 수강생들의 무관심과 반감, 불안감 등으로 표출되는 감정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Lundstrom, Fagerheim, & Van Geem, 2021). 또한 아무런 라포(rapport)가 없는 수강생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익숙하지 않은 학문 또는 주제 분야에

대한 동향 파악, 급변하는 정보기술 속에서 발전하는 리서치 툴과 DB 활용법에 대한 지식 습득 등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처한 교육 현장은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현장에 서게 되기 전 교육 역할과 관련한 공식 교육을 받은 사서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Kilcullen, 1998).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요구되는 교육 역할에 대한 기대, 독특한 교육 현장, 공식 교육과정의 부재 등은 교육 담당 사서에게 '교수 불안(teaching anxiety)'을 야기한다(Davis, 2007). 불안은 긴장감, 걱정스러운 생각, 혈압상승 등과 같은 신체적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감정(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3)이며, 교수 불안은 교수활동을 실시하면서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

교수 불안은 교사는 물론이고 교수에게 이르기까지 교육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검토되어 온 주제이며, 원인과 영향, 완화하는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교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는 미국에서조차 대학도서관 사서에 대한 교수 불안을 논의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며, 국내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업무와 관련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효율성, 직업 만족도 및 일상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oulihan et al., 2009).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교육 역할이 이를 수행하고 있는 사서에게 불안과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교육 담당 사서가 느끼는 교수 불안의 정도와 신체적·심

리적 증상 등에 대해 분석하고, 교수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중 그 중요성과 복잡성이 점점 높아지는 교육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육 역할

Davis(2007)는 ACRL의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수 지위에 관한 공동 성명(ACRL Joint Statement on Faculty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ans)』이 대학도서관 사서에 대한 교육자적 역할을 지지하는 공식적 근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 역할을 사서의 기본 기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의 온라인 사전인 디셔너리닷컴(dictionary.com)에서 사서를 찾아보면 ‘도서관학을 훈련받고 도서관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도서관 담당자’라고 정의하고 있다(Rock Holdings Inc., 2023). 두산백과에서도 사서는 ‘각종 도서관 및 자료실,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을 관리하고 대출 서비스 및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직종’으로 표현된다(두산백과, 2023). 문헌정보학용어사전(2010)에서 정의하는 사서는 ‘각종 도서관,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

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으로 사서에 대한 다양한 정의 그 어디에서도 ‘교육자’라는 단어로 정의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정의된 사서의 직업적 역할과는 상관없이 사서는 간단한 서비스 제공자에서 교육자로 바뀌었다. 북미의 경우 19세기 후반 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이 점차 커지면서 대학 사회에서 사서의 역할이 세분화되었고, 1960년대부터는 이른바 ‘교수사서(Faculty librarian)’로 불리는 교수 지위를 가진 사서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이숙희, 2005). 사서의 이러한 역할변화는 종신재직권이 걸려 있는 일종의 승진 조건과 정보 문해를 중시하던 사회적 분위기 등의 외부 영향과도 맞물려 있으나(Julien & Genuis, 2009), 기본적으로 이용자와 사서, 대학도서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서지교육, 전문 DB 교육, 정규 교과목으로의 편입 등 다양한 이용자 교육의 형태가 대학도서관계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용자 교육의 빈도와 참여율은 사서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교육 전담 사서 외에도 일반 사서들의 이용자 교육 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령은, 이제환, 2017a).

그러나 모든 사서가 교육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대학도서관 취업 전에 교육 역할을 맡을 것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Blakeslee, 1998). 직업적 정체성과 변화된 역할의 부조화, 역할 변경의 원인, 역할의 모호성 등은 역할 스트레스를 불러오며, 이러

한 역할 스트레스는 직무소진과 불안 등 신체적·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대학도서관 사서는 역할 스트레스의 수준이 간호사, 교사, 서비스직, 건설노동자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hupe, Wambaugh, & Bramble, 2015).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육 역할은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한다. 칠판에서 스마트 보드로, 종이에서 파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다른 교육자들이 함께 겪는 물리적인 환경은 물론이며, 온라인 정보자원의 확장과 확산으로 가르쳐야 할 범위가 한없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사서들만이 겪는 변화이다.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와는 별개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교육 업무를 직업적 정체성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Julien & Genuis, 2011; 김령은, 이제환 2017a). 초반에는 다소 비판적이었던 교육 업무에 대해 대학도서관의 위기와 외부의 기대가 맞물려 사서 스스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효과적 교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역할 인지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내외부적으로 느끼는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등으로 사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그간 미비했던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 2.2 교수 불안

불안(anxiety)은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

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동 또는 정서적 상태(미국정신분석학회, 2023)로 혈압 상승 등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불안은 일상생활에서 성취동기를 증진시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성취동기는 계속 증진되지만 역으로 수행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Sharma, 1970).

교수 불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없으나 대개 교수활동을 실시하면서 느끼는 불안으로 풀이되며, 느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사 불안(teacher anxiety)'으로 불리기도 한다. 교수 불안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활동 전과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활동 중에 느끼는 긴장, 자신감 부족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김형석, 2015), '교육에 대한 기대, 교육에 대한 준비, 교육 중에 발생하는 경험 중 어느 하나에서 오는 고통'(Gardner & Leak, 1994)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교수 불안은 교사, 교수 등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만연한 것으로 특히 학기 초에 그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 불안의 요인은 초·중등 교사의 경우 학급 규모, 교실 관리, 학생평가, 행정지원, 급여 등 외부적 문제와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Coates & Thoresen, 1976), 대학 교수의 경우 경험, 대중 연설의 어려움, 수업 준비, 학생들의 적대적인 발언 등(Gardner & Leak, 1994; Fish & Fraser, 2001)으로 나타난다.

한편 교사가 느끼는 교수 불안은 학생 불안 및 수행 능력과 연관이 있다. Sinclair와 Ryan(1987)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불안 반응은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학습 수행을 방

해한다. 또한 교사가 나타낸 불안 반응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야기된 불안은 다시 교사 불안으로 되돌아오는 등 상호작용적이기 때문에 교사의 불안이 전적으로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학급이나 한 과목을 운영하는 교사나 교수와는 다른 교육환경에 놓여 있는 대학도서관 사서가 겪는 교수 불안의 정도와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증상, 영향, 지원 방안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3 선행연구 분석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수 불안에 대해 처음 연구한 Davis(2007)는 문헌정보학과와 현장에서는 사서에게 교육 역할 확장과 종신 재직권 부여에 대해 논하면서, 정작 교육계에서는 교사에 대한 논의와 연구에서 사서를 간과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Davis는 교수 및 교사에게서 밝혀진 교수 불안이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도 작용하는지, 사서 집단 특유의 교수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74%가 교육 업무를 즐김에도 불구하고, 63%는 수업 전 긴장과 같은 불안을 경험하며, 60%가 신체적 증상을 65%가 정서적 증상을 경험한다고 답하였다. 추가적으로 대학도서관 사서에 대한 내외부의 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사서 스스로는 교육자적 직업 정체성이 높으나 외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설계와 분석에서 다소 투박하다는 평가(Schulte, 2009)가 있으나 사서의 정의와 직업

적 정체성, 교육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지 등 오래되었지만 깊이 논의된 적 없는 주제에 대해 다루었다는 점과 사서의 교수 불안에 대해 다룬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Julien과 Genuis(2009)는 사서의 교육 역할에서 오는 감정노동에 관해 연구하였다.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통해 수행된 연구에서 Julien과 Genuis는 교육에 대한 역할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사서가 수행하는 정보활용 교육은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부정적인 교육 경험에 대해 사서가 갖게 되는 스트레스는 교육적 훈련과 내부적인 지지와 이해 등에 의해 완화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도서관 관리자와 상급자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수 불안에 관한 연구는 아니나 사서가 수행하는 교육에 대한 가치와 여기에서 오는 감정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이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관리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2021)은 교수 불안을 학술도서관 사서직의 지속적인 이슈로 보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과 지원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Davis의 설문을 보완하고 지원책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전국의 학술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64.94%의 사서가 교수 불안을 경험하고 그 중 39.68%는 불안을 진단받기도 하는 등 사서직들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었다. 파악된 교수 불안의 요인과 관련지어 인적 자원의 지원, 교육과 관련한 훈련, 조직 내

부의 감정적 지지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하는 등 학술도서관 사서의 교수 불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들여다본 연구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대학도서관 교육사서의 주요 자격요건과 역량을 분석한 연구(최상희, 2007), 사서들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과 관련한 연구(김정현, 2011),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이종윤, 조현양, 2013), 감정 노동(민숙희, 2014) 등 교육사서의 역량과 근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신체적·정서적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수행된 바 있지만 교수 불안을 다룬 연구는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수 불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과학·수학·체육 등 교과목에 대한 교수 불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서 교사는 물론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에서 교육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파악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며,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 3. 연구방법

#### 3.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Davis(2007)의 연구와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202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두 연구의

설문지는 유사한 구조를 보이거나 Davis의 연구에서 쓰인 설문지는 사서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고정관념에 주목한 반면,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의 설문지는 사서의 역할 인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Davis의 설문 문항은 총 35개이며 인구통계학적 정보, 사서 직업 특성, 직업 선택과 인식, 교육 업무 특성, 교수 불안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의 설문 문항은 총 43개로 인구통계학적 질문, 인식하는 사서 역할, 교육 업무, 불안 진단과 자기 동일시, 불안의 영향, 교수 불안과 증상, 지원 및 향후 지원 등의 7개 영역이다.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의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Davis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교수 불안 측정에 앞서 불안에 대한 경험과 공식적인 진단을 받았는지, 교수 불안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지 등 불안에 대한 포괄적 질문과 향후 교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어떤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지원 활용에 대한 장벽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묻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음 설계된 설문지는 두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종 등 국내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잘 쓰이지 않는 문항은 제외하였고, 4년제 A그룹 대학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의 규모와 특성도 제외하였다. Davis의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사서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고정관념 등은 본 연구에서 주요한 논제로 다루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의 연구에서 측정된 불안에 대한 진단 여부는 국내에서는 사례가 드물다고 판단되어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교수 불안과 관련한 신체적·심리적 증상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 항목은 이중훈(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가평가 불안척도」를 참고하였다. 이중훈이 개발한 한국형 자가평가 불안척도는 자기보고형 불안 측정 도구인 Zung의 자가평가 불안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SAS)를 한국에 맞게 개발한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개의 문항은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을 구분하지 않고 나열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을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으로 나누어 모두 포함하였고, 이외에 Davis의 연구와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의 연구에서 쓰인 증상에 대한 응답 항목 중 교수활동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응답 항목도 일부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1차 설문지는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남성으로 구성된 교육 담당 사서 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구성, 답변지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보유 사서자격증, 교수 불안에 의한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의 빈도에 관한 질문 등 3개 문항은 제거하였고, 교수 불안을 느끼는 요인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를 추가하여 총 32개의 문항 7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재학

생 10,000명 이상의 A그룹 대학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모아폼으로 작성된 온라인 설문조사의 URL 링크를 담은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A그룹 대학의 사서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2022년 기준 교육 횟수가 B, C그룹에 비해 2-7.5배 가량이 많을 정도로 활발한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표본 수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이용자 교육횟수는 A그룹 8,986회, B그룹 3,027회, C그룹 1,057회로 나타났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답변 수집은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177부의 답변이 회수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교육업무를 현재 맡고 있거나 과거에 맡은 경험이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교수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육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설문이 즉시 종료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교육업무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37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교육 업무를 맡고 있거나 맡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140부 중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되는 2부를 제외하고 138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빈도와 백분율을 파악하는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근무 경력, 교육 업무 담당 경력, 교육 빈도, 비중, 향후 희망, 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 교육 역할 진입 전 느낀 감정, 교육 역할 진입 전 준비 정도 등에 따른 교수 불안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셔의 정확성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영역	문항 수	설문 문항 내용
응답자 배경정보	8	교육 업무 담당 경험(설문 종료 여부)
		연령, 성별, 최종학력
		현재 직위, 현재 업무
		도서관 근무 경력, 교육 관련 업무 경력
교육 업무	5	어떤 유형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자주 교육을 진행하는지?
		업무 중 교육의 비중은? 할 수 있다면 나의 업무 중 교육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사서 역할 인식	4	사서직의 주요 역할로 생각하는 업무는?
		사서로써 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은?
		처음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 역할에 대한 감정은?
		처음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 역할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교수 불안 경험여부와 요인	3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교수 불안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지?
		어떤 요인이 교수 불안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교수 불안 증상	6	교수 불안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어떠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는지?
		신체적 증상의 정도는 어떠한지?
		교수 불안의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어떠한 심리적 증상을 경험했는지? 심리적 증상의 정도는 어떠한지?
교수 불안 대처와 영향	2	교수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교수 불안이 업무 수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교수 불안에 대한 지원	4	교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어떤 형태가 좋은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교수 불안 또는 지원, 본 연구에 대한 의견 자유 기술
		후속 연구 참여 여부

## 4. 연구결과

### 4.1 응답자 배경정보

설문 응답자의 배경정보는 〈표 2〉와 같다. 설문 응답자(N=138)의 연령 분포는 20대 13명(9.4%), 30대 56명(40.6%), 40대 43명(31.2%), 50대 이상 26명(18.8%)으로 30-40대 응답자가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45명(32.6%), 여성이 93명(67.4%)으로 여성 응답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았다. 학력은 전문학사 2명(1.4%), 학사 78명(56.5%), 석사 52명(37.7%), 박사 6명(4.3%)으로 학사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위는 팀원이 111명(80.4%)으로 압도적인 비율이었으며, 팀장 21명(15.2%), 부서장 5명(4.3%)



〈표 2〉 응답자 배경정보

구분		N=138	비율(%)
연령	20대	13	9.4
	30대	56	40.6
	40대	43	31.2
	50대 이상	26	18.8
성별	남	45	32.6
	여	93	67.4
학력	전문학사	2	1.4
	학사	78	56.5
	석사	52	37.7
	박사	6	4.3
직위	팀원	111	80.4
	팀장	21	15.2
	부서장	6	4.3
업무	도서관 경영(인사, 회계, 평가, 시설관리 등)	25	18.1
	장서개발	14	10.1
	자료조직	5	3.6
	자료이용 서비스(대출, 반납, 상호대차 등)	27	19.6
	참고봉사/주제전문/연구지원 서비스	49	35.5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13	9.4
	특화 서비스(특화 장서 수집, 장애인 서비스, 자료보존 등)	1	0.7
	기타	4	2.9
근무경력	2년 미만	11	8.0
	2-5년 미만	19	13.8
	5-10년 미만	31	22.5
	10-20년 미만	43	31.2
	20년 이상	34	24.6
교육업무 경력	1년 미만	22	15.9
	1-2년 미만	41	29.7
	2-5년 미만	41	29.7
	5년 이상	34	24.6

으로 나타났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참고봉사/주제전문/연구지원 서비스가 49명(35.5%)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료이용 서비스가 27명(19.6%)으로 뒤를 이었고, 도서관 경영(25명), 장서개발(14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13명), 자료조직(5명), 특화 서비스(1명) 순으로 나타났

다.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총 4명(2.9%)으로 문화행사 3명, 분관 운영 1명으로 나타났다.

총 도서관 근무 경력은 2년 미만 11명(8.0%), 2-5년 미만 19명(13.8%), 5-10년 미만 31명(22.5%), 10-20년 미만 43명(31.2%), 20년 이상 34명(24.6%)으로 나타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55.8%)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업무 경력은 1년 미만 22명(15.9%), 1-2년 미만과 2-5년 미만이 각각 41명(29.7%), 5년 이상 34명(24.6%)으로 나타났다.

#### 4.2 교육업무

응답자의 교육업무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떠한 유형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그룹에 대한 특정 목표를 가진 교육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7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 또는 학과에서 요청하는 원샷 교육과 한 가지 특별한 콘텐츠에 대한 교육이 각각 83명(26.8%), 소그룹에서 요청하는 맞춤형 교육은 38명(12.3%)으로 나타났으며, 한 학기 이상의 연속적인 과정을 선택한 응답자는 9명(2.9%)으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과거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가

<표 3> 교육 업무 응답 결과

Q. 귀하는 어떤 유형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다중응답)	N=310	비율(%)
특정 그룹(신임교수, 대학원생, 신입생 등)에 대한 특정 목표를 가진 교육	97	31.3
교수 또는 학과에서 요청하는 원샷 교육(1-2시간의 과정으로 끝나는 교육)	83	26.8
한 가지 특별한 콘텐츠에 대한 교육(인용방법, 데이터관리, 표절방지, DB활용 등)	83	26.8
소그룹에서 요청하는 맞춤형 교육(리서치 컨설팅, 연구방법 상담, 선행연구 분석 등)	38	12.3
학과/학부/대학 차원에서 진행하는 한 학기 이상의 연속적인 과정(학점 이수, 필수과목 등)	9	2.9
Q. 귀하는 평균적을 얼마나 자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N=138	비율(%)
한 학기당 1~10회	72	52.2
한 학기당 11~20회	35	25.4
한 학기당 21~40회	22	15.9
한 학기당 41회 이상	9	6.5
Q. 본인의 업무 중 교육업무의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138	비율(%)
1-10%	34	24.6
11-30%	51	37.0
31-50%	31	22.5
51-80%	18	13.0
81% 이상	4	2.9
Q. 할 수 있다면 나의 업무 중 교육의 비중을 다음 중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N=138	비율(%)
현재보다 늘리고 싶다	31	22.5
현재 만족한다	66	47.8
현재보다 줄이고 싶다	23	16.7
아예 그만하고 싶다	18	13.0
Q. 귀하는 교육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다중응답)	N=321	비율(%)
선배 또는 동료(전임자 등)에게 도움이나 자문을 구함	83	25.9
사서전문 교육훈련 기관 주도의 직무 교육 참여	79	24.6
관련 워크숍, 세미나, 콘퍼런스 등 참여	62	19.3
학술지, 단행본 등 연구문헌 탐독	58	18.1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19	5.9

장 많이 수행하는 원샷 세션의 비율보다 특정 그룹에 대한 교육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연구 지원 서비스, 주제전문 서비스 등의 확대로 다양한 콘텐츠의 교육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안 일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도서관 교육에 대한 학점제, 필수 이수제 등의 실시로 한 학기 또는 그 이상의 과정을 늘리는 추세였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얼마나 자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1-10회가 72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11-20회(35명), 21-40회(22명), 41회 이상(9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업무 중 교육업무의 비중에 대해 묻는 문항에는 11-30%가 51명(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10%(34명), 31-50%(31명), 51-80%(18명), 81% 이상(4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업무의 비중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6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보다 늘리고 싶다는 응답자는 31명(22.5%), 현재보다 줄이고 싶다는 응답자는 23명(16.7%), 아예 그만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8명(13%)으로 나타났다.

교육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 선배 또는 동료에게 도움이나 자문을 구한다는 응답자가 83명(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사서 전문 교육훈련 기관 주도의 직무 교육 참여(79명), 관련 워크숍, 세미나, 콘퍼런스 등 참여(58명),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19명), 상위 학위 취득(12명), 기타(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한다는 응답이 3명, 개인적인 공부 및 훈련이 2명, 교안·

교습자료 등 자체 개발이 2명, 대학 내 관련 기관들과 협력이 1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서들은 동료와 사서 전문 교육훈련 기관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3 사서 역할에 대한 인식

사서 역할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떤 분야의 업무를 사서직의 주요 역할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순위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최대 3개를 선택하여 1, 2, 3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업무는 참고봉사/주제전문/연구지원 서비스로 119명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장서개발(76명), 자료이용 서비스(66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48명), 도서관 경영(45명), 자료조직(32명), 특화 서비스(9명), 위 나열된 것 이외의 업무(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추세를 보여주는 듯 과거 자료의 입수와 검색에 집중되어 있던 서비스보다 연구지원 서비스 등 좀 더 전문적이고 확장된 서비스 제공을 사서의 주요 역할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서로서 교육업무 수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는 사서라는 직업 정체성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4명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소 의무적이며 내외부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2명(30.4%), 부가적인 업무일 뿐 메인 역할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2명(8.7%)으로 나타났으며, 하지 않아도 무방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표 4〉 사서 역할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

Q. 다음 나열된 업무 중 어떤 분야의 업무를 사서직의 주요 역할로 생각하십니까?(다중응답)	N=400	비율(%)
참고봉사 / 주제전문 / 연구지원 서비스	119	29.8
장서개발	76	19.0
자료이용 서비스(대출, 반납, 상호대차 등)	66	16.5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48	12.0
도서관 경영(인사, 회계, 평가, 시설관리 등)	45	11.3
자료조직	32	8.0
특화 서비스(특화 장서 수집, 장애인 서비스, 자료보존 등)	9	2.3
위 나열된 것 이외의 업무	5	1.3
Q. 귀하는 사서로서 도서관에서의 교육업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N=138	비율(%)
사서라는 직업 정체성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	84	60.9
다소 의무적이며 내외부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	42	30.4
부가적인 업무일 뿐 메인 역할은 아님	12	8.7
하지 않아도 무방한 업무	0	0.0
Q. 귀하가 처음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업무에 대한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N=138	비율(%)
너무 맡고 싶은 업무임	14	10.1
경험은 없지만 맡게 되어도 상관없음	58	42.0
주어지면 하겠지만 되도록 맡고 싶지는 않음	58	42.0
절대 맡고 싶지 않은 업무임	8	5.8
Q. 귀하가 처음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업무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까?	N=138	비율(%)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	5	3.6
조금 준비되어 있음	49	35.5
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음	63	45.7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21	15.2

처음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업무에 대한 감정을 묻는 문항에는 경험은 없지만 맡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자와 주어지면 하겠지만 되도록 맡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가 각각 58명(42%)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너무 맡고 싶은 업무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4명(10.1%), 절대 맡고 싶지 않은 업무였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8명(5.8%)으로 나타났다.

처음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업무에 대한 준비 정도를 묻는 문항에는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었다는 응답자가 63명(45.7%)으로 가장 많았다. 조금 준비되어 있었다는 응답

자가 49명(35.5%),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1명(15.2%)으로 나타났으며,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5명(3.6%)으로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는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모든 사서가 교육업무를 맡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나 스스로 교육업무가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사서가 되기 전 교육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할 인식과 감정, 준비도는 효과적 교육업무 수행을 위해 사서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보여준다.

#### 4.4 교수 불안

##### 4.4.1 교수 불안 경험 여부와 교수 불안의 요인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표 5>와 같이 117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84.8%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21명으로 15.2%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의 선행연구보다 높은 수치로 보다 많은 사서들이 교수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분석한 근무 경력, 교육업무 담당 경력, 교육 빈도, 비중, 향후 희망, 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 교육 역할 진입 전 느낀 감정, 교육 역할 진입 전 준비 정도 등에 따라 교수 불안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표본의 크기가 작아 피셔의 정확성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교수 불안 여부는 근무 경력, 교육업무 경력, 교육 빈도, 교육업무 비중, 교육업무 비중 희망, 교육 역할 인식 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 역할에 대한 감정 즉 맡고 싶은 업무인지 그렇지 않은 업무인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 역할을 맡고 싶

지 않은 사람일수록 교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역할에 대한 준비 정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본인이 교육 역할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과 교육업무 경력, 교육 빈도, 교육업무 비중, 교육업무 비중 희망, 교육 역할 인식 등에 대해 교수 불안에 차이가 없는 것은 경력이 쌓이고 많은 교육을 경험한다고 하여도 사서들은 여타의 다른 이유로 교수 불안을 느끼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을 맡고 싶어 했거나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수 불안 해소에 이를 고려한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7>과 같이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교수 불안을 느끼는 때가 언제 인지 묻는 문항에는 매 교육은 아니나 내가 잘 모르는 콘텐츠에 대해 준비하여 가르칠 때라고 응답한 사람이 71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매 교육 전에 준비하는 동안(60명), 매 교육은 아니나 교수 등 특정 그룹을 가르칠 때(32명), 매 교육 중(22명), 매 교육 후 복기하면서(11명), 기타(5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매일 교수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 2명, 교수가 참관할 때 1명, 외국어로 진행할 때 1명, 학기 교육 시작 직전 1명으로 나타났다.

<표 5> 교수 불안 경험여부 응답 결과

Q. 귀하는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N=138	비율(%)
네	117	84.8
아니오	21	15.2

〈표 6〉 교수 불안에 대한 피서의 정확성 검정 결과

구분	교수불안				p	
	네		아니오			
	빈도	%	빈도	%		
근무경력	2년 미만	10	(90.9)	1	(9.1)	.668
	2-5년 미만	14	(73.7)	5	(26.3)	
	5-10년 미만	26	(83.9)	5	(16.1)	
	10-20년 미만	38	(88.4)	5	(11.6)	
	20년 이상	29	(85.3)	5	(14.7)	
교육업무 경력	1년 미만	20	(90.9)	2	(9.1)	.860
	1-2년 미만	34	(82.9)	7	(17.1)	
	2-5년 미만	34	(82.9)	7	(17.1)	
	5년 이상	29	(85.3)	5	(14.7)	
교육빈도	한 학기당 1~10회	60	(83.3)	12	(16.7)	.552
	한 학기당 11~20회	32	(91.4)	3	(8.6)	
	한 학기당 21~40회	18	(81.8)	4	(18.2)	
	한 학기당 41회 이상	7	(77.8)	2	(22.2)	
교육업무 비중	1-10%	27	(79.4)	7	(20.6)	.324
	11-30%	46	(90.2)	5	(9.8)	
	31-50%	27	(87.1)	4	(12.9)	
	51-80%	13	(72.2)	5	(27.8)	
	81% 이상	4	(100.0)	0	(.0)	
교육업무 비중 희망	현재보다 늘리고 싶다	26	(83.9)	5	(16.1)	.685
	현재 만족한다	54	(81.8)	12	(18.2)	
	현재보다 줄이고 싶다	20	(87.0)	3	(13.0)	
	아예 그만하고 싶다	17	(94.4)	1	(5.6)	
교육 역할 인식	사서라는 직업 정체성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	73	(86.9)	11	(13.1)	.616
	다소 의무적이며 내외부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	34	(81.0)	8	(19.0)	
	부가적인 업무일 뿐 메인 역할은 아님	10	(83.3)	2	(16.7)	
교육 역할 감정	너무 맡고 싶은 업무임	9	(64.3)	5	(35.7)	.009**
	경험은 없지만 맡게 되어도 상관없음	46	(79.3)	12	(20.7)	
	주어진다면 하겠지만 되도록 맡고 싶지는 않음	55	(94.8)	3	(5.2)	
	절대 맡고 싶지 않은 업무임	7	(87.5)	1	(12.5)	
교육 역할 준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	2	(40.0)	3	(60.0)	.038*
	조금 준비되어 있음	40	(81.6)	9	(18.4)	
	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음	57	(90.5)	6	(9.5)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18	(85.7)	3	(14.3)	

\* p<.05 \*\* p<.01

〈표 7〉 교수 불안을 느끼는 시기와 교수 불안의 요인 응답 결과

Q. 귀하가 교수 불안을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다중응답)	N=201	비율(%)
매 교육은 아니나 내가 잘 모르는 콘텐츠에 대해 준비하여 가르칠 때	71	35.3
매 교육 전에 준비하는 동안	60	29.9
매 교육은 아니나 교수 등 특정 그룹을 가르칠 때	32	15.9
매 교육 중	22	10.9
매 교육 후 복기하면서	11	5.5
기타	5	2.5
Q. 어떤 요인이 교수 불안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중응답)	N=318	비율(%)
준비한 교육 내용, 범위, 방향이 잘 설정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59	18.6
기본적으로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52	16.4
교육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기수강자 등)이 참여해서 지루함을 느낄 것 같아서	48	15.1
교육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44	13.8
특정 그룹(예를 들면 교수진과 같은)을 가르치는 것이 두려워서	36	11.3
기대하는 학습 목표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너무 많은 것을 교육해주길 원함)	28	8.8
정보화기기(PC,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나 소프트웨어 등을 잘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14	4.4
준비한 것을 잊어버릴 것 같아 두려워서	12	3.8
시간이 부족하거나 남을 것 같아서	10	3.1
물리적으로 낯선 공간이 불편해서	7	2.2
수강생들과의 친분이나 접촉이 없어서	6	1.9
기타	2	0.6

어떤 요인이 교수 불안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묻는 문항은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나타났다. 준비한 교육 내용·범위·방향 설정에 대한 의문이 59명(18.6%)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 연설의 두려움 52명(16.4%), 교육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참여 48명(15.1%), 교육 준비 미흡 44명(13.8%), 특정 그룹 교육에 대한 두려움 36명(11.3%) 순이었다.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교육이 아닌 이상 교육 대상, 교육 목적에 따라 매번 새로운 교안을 준비해야 하며, 내용이 같은 원샷 세션의 경우라도 주제 분야나 학문 분야를 고려한 교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된 교안이 없기 때문에 교육 내용과 방향에 대한 확

신이 없고 이러한 요인이 곧 교수 불안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 4.4.2 교수 불안의 증상

〈표 8〉과 같이 교수 불안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N=117) 중 교수 불안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96명으로 82.1%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험한 신체적 증상의 유형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두근거림이 69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얼굴 빨개짐 또는 화끈거림(45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는 6명이었는데 말을 더듬거나 속도가 빨라짐, 말문 막힘 등으로 응답하여 전부 스피치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표 8〉 교수 불안의 신체적 증상 응답 결과

Q. 교수 불안의 신체적 증상(얼굴 빨개짐, 가슴 두근거림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N=117	비율(%)
네	96	82.1
아니오	21	17.9
Q. 교수 불안을 느낄 때 다음 중 어떤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か? (다중응답)	N=233	비율(%)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두근거림	69	29.6
얼굴 빨개짐 또는 화끈거림	45	19.3
피로	19	8.2
손발 떨림 또는 경련	18	7.7
불면증 또는 숙면하지 못함	17	7.3
배탈, 속쓰림, 소화불량 등 위장 장애	16	6.9
뒷목 당김, 어깨 결림 등의 관절통, 근육통	12	5.2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가고 싶은 느낌	12	5.2
과도한 땀 흘림	8	3.4
호흡곤란 또는 가슴 답답	7	3.0
어지럼증, 두통	4	1.7
기타	6	2.6
※ 신체적 증상 유형의 다중항목 선택자 수	N=96	비율(%)
1개	21	21.9
2개	38	39.6
3개	25	26.0
4개	5	5.2
5개	3	3.1
6개	3	3.1
8개	1	1.0
Q. 교수 불안에 의한 신체적 증상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N=96	비율(%)
매우 심함	2	2.1
심함	12	12.5
보통	66	68.8
적음	16	16.7

신체적 증상의 유형은 총 14개로 제시되었다. 얼마나 많은 증상을 경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응답자가 몇 가지 유형을 선택하였는지 빈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1개를 선택한 응답자는 21명(15.2%), 2개를 선택한 응답자는 38명(27.5%), 3개를 선택한 응답자는 25명(18.1%)으로 나타났으며 4개 이상 다수의 증상 유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12명(5.1%)으로

나타났고 그중 가장 많은 증상 유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총 8개의 증상을 선택(1명)하였다.

한편 교수 불안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신체적 증상 정도는 보통 66명(68.8%), 적음 16명(16.7%), 심함 12명(12.5%), 매우 심함 2명(2.1%) 순으로 나타나 교수 불안의 신체적 정도는 매우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와 같이 교수 불안의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94명으로 80.3%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험한 심리적 증상의 유형은 두렵거나 무서움이 38명(1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몹시 예민해짐(37명), 집중하기 어려움(29명), 브레인 포그(27명), 안절부절못함(23명), 최악의 상황 상상(20명), 신경질적이고 짜증남(11명), 부정적 자기 암시(10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증상의 유형은 총 9개로 제시되었으며, 신체적 증상과 마찬가지로 각 응답자가 몇 가지 유형을 선택하였는지 빈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1개를 선택한 응답자는 34명(24.6%), 2개를 선택한 응답자는 39명(28.3%), 3개를 선택한 응답자는 13명(9.4%)으로 나타났으며 4개 이상 다수의 증상 유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8명(5.7%)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가장 많은 증상 유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총 8개의 증상을 선택하였으며, 2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9〉 교수 불안의 심리적 증상 응답 결과

Q. 교수 불안의 심리적 증상(짜증, 두려움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N=117	비율(%)
네	94	80.3
아니오	23	19.7
Q. 교수 불안을 느낄 때 다음 중 어떤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십니까?(다중응답)	N=196	비율(%)
두렵거나 무서움	38	19.4
몹시 예민해짐	37	18.9
집중하기 어려움	29	14.8
머릿 속이 하얘짐(브레인 포그)	27	13.8
안절부절못함	23	11.7
최악의 상황(준비하지 않은 것을 질문받는 등)을 계속 상상	20	10.2
신경질적이고 짜증남	11	5.6
마음이 약해져 부정적인 자기 암시(나는 안 될거야, 안 될 것 같아)	10	5.1
기타	1	0.5
※ 심리적 증상 유형의 다중항목 선택자 수	N=94	비율(%)
1개	34	36.2
2개	39	41.5
3개	13	13.8
4개	3	3.2
5개	2	2.1
7개	1	1.1
8개	2	2.1
Q. 교수 불안에 의한 심리적 증상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N=94	비율(%)
매우 심함	2	2.1
심함	12	12.5
보통	66	68.8
적음	16	16.7

교수 불안의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심리적 증상 정도는 보통 58명(61.7%), 심함 17명(18.1%), 적음 15명(16%), 매우 심함 4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심함과 매우 심함을 합치면 21명(22.4%)으로 신체적 증상의 14명(14.6%)보다 많은 수치로, 심리적 증상이 신체적 증상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4.4.3 교수 불안에 대한 대처와 영향

〈표 10〉은 교수 불안에 대한 대처와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교수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업을 더 철저히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78명(41.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7명(25.3%), 동료나 친구에게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37명),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13명),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 복용(7명), 상담이나 병원 치료(3명), 기타(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심호흡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불안이 업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업무를 더 잘 수행하는 계기가 된다는 응답자가 52명(44.4%), 교육업무를 더 어렵게 한다는 응답자 43명(36.8%), 교육업무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2명(18.8%)으로 나타나 교수 불안이 교육업무에 주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4.4.4 교수 불안에 대한 지원

〈표 11〉은 교수 불안에 대한 지원을 분석한 결과이다. 교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어떤 형태가 좋은지 묻는 문항에 교수법, 스피치와 관련한 교육과정 또는 워크숍 참석을 선택한 응답자가 68명(2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서 전문 교육훈련 기관 주도의 직무 관련 교육과정 또는 워크숍 참석 66명(24.9%),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그룹과의 커뮤니티 형성 54명(20.4%), 전문가 또는 동료 그룹이 해주는 나의 교육에 대한 피드백, 컨설팅 43명(16.2%), 불안심리 극복과 관련한 교육과정 또는 워크숍 참석 20명(7.5%), 상담 및

〈표 10〉 교수 불안에 대한 대처와 영향 응답 결과

Q. 교수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다중응답)	N=186	비율(%)
많은 시간을 들여 수업을 더 철저히 준비	78	41.9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음(받아들임)	47	25.3
동료나 친구에게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37	19.9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13	7.0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청심환 등) 복용	7	3.8
상담이나 병원치료	3	1.6
기타	1	0.5
Q. 교수 불안이 교육업무 수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N=117	비율(%)
교육업무를 더 잘 수행하는 계기가 됨	52	44.4
교육업무를 더 어렵게 함	43	36.8
교육업무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함	22	18.8

〈표 11〉 교수 불안에 대한 지원 응답 결과

Q. 교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다음 중 어떤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중응답)	N=265	비율(%)
교수법, 스피치와 관련한 교육과정 또는 워크숍 참석	68	25.7
사서 전문 교육훈련기관 주도의 직무 관련 교육과정 또는 워크숍 참석	66	24.9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그룹과의 커뮤니티 형성	54	20.4
전문가 또는 동료 그룹이 해주는 나의 교육에 대한 피드백, 컨설팅	43	16.2
불안심리 극복과 관련한 교육과정 또는 워크숍 참석	20	7.5
상담 및 의료지원	11	4.2
기타	3	1.1
Q.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중응답)	N=211	비율(%)
기회가 부족해서	53	25.1
시간이 없어서	53	25.1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몰라서	43	20.4
지원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20	9.5
교수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18	8.5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15	7.1
기타	9	4.3

의료지원 11명(4.2%)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3명(1.1%)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업무 변경을 지원책으로 꼽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기회가 없어서와 시간이 없어서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53명(25.1%)으로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몰라서 43명(20.4%), 교수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18명(8.5%),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15명(7.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모두 9명(4.3%)으로 알고 있는 지원이 없다(4명), 교수 불안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2명), 상담하다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지적받을까 봐(1명), 출장비 등 예산 부족(1명), 직장 내 형성된 무관심(1명) 등의 의견으로 분석되었다.

#### 4.5 교육업무와 교수 불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교육업무와 본 연구에 관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응답의 세부 내용은 〈표 12〉와 같다. 교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세미나, 워크숍, 스피치 방법 등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과 상급 기관 주도의 교안 공유 등 정책적 지원을 제시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구 노력을 통한 교수 불안 극복 방법을 제안하는 의견이 많았다.

교수 불안 등 부담이 많은 업무인 만큼 교육업무 순환에 대한 의견, 개인 특성에 따른 업무 분장 등 인사 문제와 관련지은 의견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고, 사서 업무 확장에 대한 우려에 반해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피력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교육업무에 대한 관리자의 무관심 혹은 너무

〈표 12〉 기타 의견

구분	의견(응답자 수)
국가적·정책적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세미나 등 기회 부여, 전문적 지원 필요(7)</li> <li>• 경험과 교안 공유, 교안에 대한 상급 기관 또는 국가적 차원(KERIS 등)의 지원 필요(4)</li> <li>• 교수 불안은 나의 전문지식보다 스피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훈련 필요(1)</li> </ul>
자구 노력을 통한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저한 준비, 경험, 전문지식 습득 등 스스로 노력을 통해 교수 불안은 극복할 수 있음 (10)</li> <li>• 교육 목표를 너무 멀리 설정하지 말고 가벼운 교육 목표부터 시작하면 극복 가능(1)</li> <li>• 대학도서관 사서라면 교수 불안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1)</li> </ul>
인사 문제와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 불안이 심한 사서에게 굳이 교육업무를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4)</li> <li>• 교수 불안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여 교육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교수 불안을 덜 겪는다는(극복한다는) 이유로 너무 오랜 시간 교육업무를 맡고 있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낌(1)</li> <li>• 교수 불안을 호소하는 직원을 교육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에 대한 고민(1)</li> </ul>
사서 업무 확장에 비해 시간과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샷 교육 등은 원하는 내용이 달라 고심하여 매번 교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과 인력 부족(4)</li> <li>• 사서의 업무가 어디까지로 확대되어야 하는지 의문(1)</li> <li>• 리포트 작성, 글쓰기 기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사서의 업무인지 이용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1)</li> </ul>
관리자의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강자들보다 상급자의 무관심(또는 너무 과한 관심)이 더욱 불안하게 함(1)</li> <li>• 교육업무에 소요되는 준비와 노력에 대한 상급자의 관심 필요(1)</li> </ul>
교과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서가 문헌정보학을 전공할 때 스피치, 교육업무 등에 대한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1)</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사서가 교수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음(2)</li> <li>• 교육이 이용자에게 진심으로 유용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음(1)</li> <li>• 교육을 하는 자와는 관계없이 듣는 자로부터 평가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큼(1)</li> </ul>

과도한 관심과 기대에 대한 부담, 사서가 되기 위해 문헌정보학을 전공할 때 교육과 관련한 과정의 부재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많은 사서가 교수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 교육이 이용자에게 유용한지에 대한 우려, 교육자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수강생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 4.6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가 교수 불안을 경험하는지, 교수 불안이 근무 경

력, 교육 업무 경력, 사서 역할 인식, 교육업무에 대한 감정과 준비 등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았다. 이어 교수 불안의 신체적·심리적 증상과 정도, 영향 등에 대해 파악하였고, 교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담당 사서 중 교수 불안을 느끼는 사서는 전체 응답자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를 보이며, 응답자 중 교수 불안에 의한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 사서는 각각 82.1%와 8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 불안에 의한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이 2개 이상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자도 절반을 넘는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교육 담당 사서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수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들의 교수 불안은 근무 경력, 교육업무 경력, 교육 빈도, 교육업무 비중, 교육 역할 인식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음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 역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준비의 정도가 완벽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과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교수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사서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학부 과정부터 교육 업무에 대한 준비와 감정이 교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사서가 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하거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나, 사서들은 스스로 교육업무를 직업적 정체성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 교육업무를 포함하는 참고 봉사/주제전문/연구지원 서비스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서의 역할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용자 대상 특성화 서비스를 통해 직업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들은 '잘 모르는 콘텐츠에 대해 준비하여 가르칠 때' 가장 많이 교수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한 내용, 범위, 방향이 잘 설정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가장 큰 교수 불안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번 같은 교육을 진행

하지 않고 교육의 목적과 대상의 수준, 주제 분야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 현장과 이에 대한 교육 담당 사서의 심적 부담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다섯째, 교수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대처할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수도 25.3%에 달한다. 이는 외부의 지원을 활용하기보다 자구 노력으로 교수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사서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외부의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5. 결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학부 과정부터 교육에 대한 사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서 대부분은 문헌정보학 학부 과정 중에 사서의 교육 역할에 대한 구체적 언급 또는 훈련 없이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 역할에 대한 감정과 준비 정도가 교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문헌정보학 교과 과정부터 이용자 교육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 과정 중 이용자 교육과 관련한 과정이 있는 대학은

확인되지 않았다(장수현, 박상욱, 남영준, 2022). 현장 실습 과정에서 이용자 교육을 포함하기를 권유하고 있으나 이는 실습 현장의 관중과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한정된 실습 시간에 이용자 교육을 심층적으로 다루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서의 교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교과 과정부터 이용자 교육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김태경(2007)은 한국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정보이용자교육 교과과정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현 시점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 모형에는 정보이용자교육 유형을 시작으로 교수-학습이론, 교수법, 이용자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교육 목적별 또는 대상별 기획 방법, 관중별 중점 사항, 스피치 훈련 및 시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상급기관 또는 협의회 차원에서 제시하는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교수 불안의 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준비한 교육 내용·범위·방향에 대한 의문'은 기본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안이 없다는 것과 교육 대상, 교육 유형, 교육 목표에 따른 교안 준비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자 중 교육업무만을 고유 업무로 하는 사서의 비율은 2.9%에 불과한데, 이는 교육업무 담당 사서가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대학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이하 ACRL)는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깨닫고 2003년 '학술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Instruction Programs in Academic Libraries)'을 제정하고 배포했다(ACRL, 2023).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프로그램 설계, 지원으로 나뉘는데 프로그램 설계 부분에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식, 구조, 평가 등에 대한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국내에도 ACRL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지침이 있다면 교안 작성에 시간과 노력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규모가 작거나 이용자 교육의 난도가 비교적 낮은 대학도서관을 위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교안 또는 동영상 제작·배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한국도서관협회나 대학도서관연합회 등 전국 단위의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서 전문 교육훈련 기관의 이용자 교육 커리큘럼 다양화와 교육 담당 사서들의 커뮤니티 형성이다. 사서들은 교수 불안 완화를 위한 지원으로 교육훈련과 워크숍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나 기회, 시간 부족을 제약으로 꼽았다. 대학도서관 사서가 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도로 이루어지며, 두 기관 모두 연 1회 정도의 교육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연 1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처음 이용자 교육을 맡은 사서들이나 오랜 시간 교육업무를 맡아온 사서들 모두에게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더 많은 기회의 확대와 기초, 심화, 실습, 토론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 기획과 전문지식 함양에 대한 부분 외에도 스피치와 불안심리 극복에 대한 교육훈련도 함께 이

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교육 담당 사서들은 본인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서들과의 커뮤니티 형성이 교수 불안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사서들은 커뮤니티에서 교육과 관련된 교안을 공유하고 사례를 참고하며 성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 담당 사서의 교육 훈련에 이어 교육훈련을 받은 사서들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사서들끼리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교육훈련 주관 기관이 앞장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교육 담당 사서에 대한 관리자, 동료 등 내부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것은 사서의 교수 불안에 대해 먼저 연구한 Julien과 Genuis (2009), Lundstrom와 Fagerheim, Van Geem (2021)의 공통된 의견이다. 모든 대학도서관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교육 업무를 담당 사서의 역량과 노력에 맡길 수밖에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노력은 수치로 산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 또한 교육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대학도서관의 교육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정서적 지지는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완화하고 효과적 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국내의 연구가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 활성화

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197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구를 분석한 김령은과 이제환(2017b)에 따르면 이용자 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는 양적으로 빈약한 가운데 내용상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로 한국의 교육 환경과 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한 연구, 특히 이용자 교육의 주체인 사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안의 일환으로 대학도서관의 교육 담당 사서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으며, 교수 불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더 나은 이용자 교육을 위한 전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양적 분석만을 통해 대학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의 교수 불안을 파악하였으며, 사서의 교수 불안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행되는 연구인 만큼 교수 불안의 유무와 정도,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는 한계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향후 교육 담당 사서와의 심층면담 또는 사서 교육 관련 전문가, 학계 전문가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사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김령은, 이제환 (2017a).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추이와 특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153-179. <https://doi.org/10.16981/kliiss.48.201712.153>

- 김령은, 이제환 (2017b).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특징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83-112. <https://doi.org/10.16981/kliss.48.201709.83>
- 김정현 (2011).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43-262.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243>
- 김태경 (2007). 한국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정보이용자교육 교과과정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387-413. <https://doi.org/10.4275/KSLIS.2007.41.2.387>
- 김형석 (2015). 초등학교 영재담당교사의 교수불안이 창의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과 자기 위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재교육 전공.
- 노영희 (2016). 대학도서관의 역할변화에 관한 사서의 인식조사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2), 227-256. <https://doi.org/10.3743/KOSIM.2016.33.2.227>
- 두산백과 (2023). 사서. 두피디아.  
출처: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6030](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6030)
- 미국정신분석학회 (2023). 불안. 정신분석용어사전.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5845&cid=48639&categoryId=48639>
- 민숙희 (2014). 대학도서관 사서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상사의 감성지능, 사회적 지원 및 도서관서비스 제공수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345-376.  
<https://doi.org/10.4275/KSLIS.2014.48.4.345>
- 이숙희 (2005). 대학사서의 교수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81-103.  
<https://doi.org/10.4275/KSLIS.2005.39.1.081>
- 이중윤, 조현양 (2013). 대학도서관 사서의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181-205. <https://doi.org/10.4275/KSLIS.2013.47.3.181>
- 이중훈 (1996). 한국형 자가평가 불안척도의 개발.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13(2), 279-294.  
<https://doi.org/10.12701/yujm.1996.13.2.279>
- 장수현, 박상욱, 남영준 (2022). 국내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과과정 분석 및 인식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199-23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199>
- 최상희 (2007). 사서직 구인광고에서 나타난 교육사서 직무와 역량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201-215. <https://doi.org/10.4275/KSLIS.2007.41.3.20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출처: <http://www.rinfo.kr/stat/keyitem/subject/5?stat=sum&sy=2022>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출처: [https://www.kla.kr/kla/reference07/2617?sfl=wr\\_subject&stx=%EC%82%AC%EC%](https://www.kla.kr/kla/reference07/2617?sfl=wr_subject&stx=%EC%82%AC%EC%)



84%9C&sop=and.

- ACRL (2023). Guidelines for instruction programs in academic libraries.  
Available: <https://www.ala.org/acrl/standards/guidelinesinstruction>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3, March 13). Anxiet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vailable: <https://www.apa.org/topics/anxiety>
- Blakeslee, S. (1998). Librarian in a strange land: teaching a freshman orientation course. *Reference Services Review*, 26(2), 73-78.
- Coates, T. J. & Thoresen, C. E. (1976). Teacher anxiety: a review with recommend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2), 159-184.
- Davis, K. D. (2007). The academic librarian as instructor: a study of teacher anxiety. *College & Undergraduate Libraries*, 14(2), 77-101.
- Fish, T. A. & Fraser, I. H. (2001). Exposing the iceberg of teaching anxiety: a survey of faculty at three New Brunswick Universities. *Electronic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4.
- Gardner, L. E. & Leak, G. K. (1994). Characteristics and correlates of teaching anxiety among college psychology teachers. *Teaching of Psychology*, 21(1), 28-32.
- Houlihan, M., Fraser, I., Fenwick, K. D., Fish, T., & Moeller, C. (2009). Personality effects on teaching anxiety and teaching strategies in university professors. *Canadi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39(1), 61-72.
- Julien, H. & Genuis, S. K. (2009). Emotional labour in librarians' instructional work. *Journal of Documentation*, 65(6), 926-937.
- Julien, H. & Genuis, S. K. (2011). Librarians' experiences of the teaching role: a national survey of libraria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3(2), 103-111.
- Kilcullen, M. (1998). Teaching librarians to teach: recommendations on what we need to know. *Reference Services Review*, 26(2), 7-18.
- Lundstrom, K., Fagerheim, B., & Van Geem, S. (2021). Library teaching anxiety: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a persistent issue in librarianship. *College & Research Libraries*, 82(3), 389-409.
- Rock Holdings Inc. (2023, March 31). Librarian. *Dictionary.com*.  
Available: <https://www.dictionary.com/browse/librarian>
- Schulte, S. J. (2009). More research needed on librarian teaching anxiety.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4(4), 74-77. <https://doi.org/10.18438/B8NW3R>
- Sharma, S. (1970). Manifest anxiety and school achieve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3), 403-407.

Shupe, E. I., Wambaugh, S. K., & Bramble, R. J. (2015). Role-related stress experienced by academic librarian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1(3), 264-269.

<https://doi.org/10.1016/j.acalib.2015.03.016>

Sinclair, K. E. & Ryan, G. (1987). Teacher anxiety, teacher effectiveness, and student anxiet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3(3), 249-25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023, March 30). Anxiety. *Psychoanalytic Terms & Concepts*.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5845&cid=48639&categoryId=48639>

Choi, Sang-Hee (2007). An analysis on the roles, responsibilities, and job qualifications of instruction librarians in librarian job a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3), 201-215. <https://doi.org/10.4275/KSLIS.2007.41.3.201>

Doosan (2023, March 31). Librarian. *Doopedia*. Available: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6030](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6030)

Jang, Su Hyun, Park, Sang Uk, & Nam, Young Joon (2022). A study on curriculum analysis and awareness of the development of standard curriculum for library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 199-23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199>

Kim, Hyungsuk (2015). Effects of Teaching Anxiety of Teachers in Charge of Gif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Creative Teaching Behaviors: Centered on Moderating Effects of Optimism and Self-comfort.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im, Jeong-Hyen (2011). A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librarians of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243-262. <https://doi.org/10.16981/kliss.42.4.201112.243>

Kim, Ryoung Eun & Lee, Jae Whoan (2017a). Progress and special features in user instruction of Korea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153-179. <https://doi.org/10.16981/kliss.48.201712.153>

Kim, Ryoung Eun & Lee, Jae Whoan (2017b). A literature review on user instruction of Korea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83-112.

<https://doi.org/10.16981/kliss.48.201709.83>

Kim, Tae-Kyung (2007). A study on the curricular model development for information user instruction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2), 387-412.

<https://doi.org/10.4275/KSLIS.2007.41.2.387>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23). Rinfo.

Available: <http://www.rinfo.kr/stat/keyitem/subject/5?stat=sum&sy=2022>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Available:

[https://www.kla.kr/kla/reference07/2617?sfl=wr\\_subject&stx=%EC%82%AC%EC%84%9C&sop=and](https://www.kla.kr/kla/reference07/2617?sfl=wr_subject&stx=%EC%82%AC%EC%84%9C&sop=and).

Lee, Jong Yoon & Cho, Hyun Yang (2013). Development of work stress measurement tool for academic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181-205. <https://doi.org/10.4275/KSLIS.2013.47.3.181>

Lee, Jung Hoon (1996).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13(2), 279-294.

<https://doi.org/10.12701/yujm.1996.13.2.279>

Lee, Sook-Hee (2005). A study on faculty status for academic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1), 81-103.

<https://doi.org/10.4275/KSLIS.2005.39.1.081>

Min, Sook Hee (2014). The librarian's emotional labor at the university librarie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among supervisor's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upport and library service lev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345-376.

<https://doi.org/10.4275/KSLIS.2014.48.4.345>

Noh, Yonghee (2016). A study on librarians' perception about the changing role of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2), 227-256.

<https://doi.org/10.3743/KOSIM.2016.33.2.227>

